

# 이탈은 커고, 선택은 확고했다

KIA, '현실과 이상' 사이 뒷북만 친스토브리그

내야·불펜 '부분 보완'…최형우 이적이 남긴 상징적 균열  
마운드는 '유지와 보강' 흐름, 마지막 FA 조상우 협상 관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스  
토브리그가 한  
달을 넘어섰다.  
내부 FA 협상이

연달아 결론이 나면서 이번 겨울의 윤곽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떠난 선수는 세 명, 지켜낸 선수는 두 명.  
전력과 상징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팬심까  
지 크게 요동쳤다. 구단은 남은 협상을 조  
율하는 동시에 본격 외국인 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KIA는 일찌감치 '제한된 예산' 속 합리적  
지출을 기본 원칙으  
로 세웠다.

이제 약은 오프시즌

전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됐다.  
구단은 내부 FA와 2차 드래프트, 아시아퀴  
터, 외국인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  
해야 했다.

특히 FA 시장의 출발점부터 불리함을  
안고 들어갔다.

최형우와 양현중, 박찬호와 조상우, 이준  
영과 한승택까지 총 6명이 FA자격을 얻었  
다. 예산 폭이 좁은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였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예상대로 이탈이

컸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이 첫 번째 신

호탄이 됐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였고, 시장 환경  
이 큰 요인이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수요가 높았

고, 선수의 가치도 자

연스럽게 상승했다. 반면 KIA는 자체 설정  
한 합리적 기준선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과 시장 논리가 구단의 방침보다 앞  
선 사례였다. 이에 대한 즉각적 보완도 뒤따  
랐다.

KIA는 박찬호의 보상선수로 투수 흥민  
규를 지명했고, 2차 드래프트에서는 불펜  
이태양과 내야수 이호연을 영입했다. 전력  
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취약한 불펜과 암  
아진 내야 템스를 메우는 수준의 조치였다.

백업 포수 한승택도 팀을 떠났다. 팀 내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리그내 포수 수요  
는 그의 선택지를 넓혔다. 공백 규모만 놓  
고 보면, 전력의 중심을 흔드는 변수는 아  
니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최형우의 이적이  
다. 이 사안은 여러 층위가 겹친 복합적 이  
슈였다.

올 시즌 KIA는 성적 부진 속에서 팀 노쇠  
화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형우는 여전히 실질 전력이지만, 은퇴  
까지의 활동 기간은 2-3년 남짓으로 좁혀  
져 있다. 구단은 그 이후 생길 빈자리를 고  
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FA 계약 금  
액과 기간에 대한 견해차가 더해졌고, 지명

타자(DH) 운영 문제까지 겹쳤다. 나성범·  
김선빈의 출장 관리와 젊은 선수들의 타석  
배분을 고려하면 DH 한 자리를 고정하기  
쉽지 않았다. 구단이 최형우와 결별한 배경  
에는 계약 구조에 대한 이견과 함께, 타선  
운영을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  
다는 '미래 지향적' 판단이 동시에 적용했  
다.

반면 투수진은 다른 흐름이었다.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이 가장 먼저  
잔류를 확정했고, 외국인 '에이스' 네일과  
도 재계약을 마쳤다.

논의가 이어지는 올리 역시 구단이 긍정  
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중의 잔  
류는 이번 겨울 가장 큰 수확이다. 논의가  
길어지며 불안감이 있었지만 결국 원소속  
팀과 다시 손을 잡았다. 팀을 지탱해온 좌  
완 선발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내부 FA 테이블에는 조상우만 남아  
있다. 필승조 핵심인 만큼 구단 역시 잔류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조상우 건은 이번 FA의 마  
지막 단추가 될 전망이다.

남은 겨울 일정도  
명확하다. 외국인 선  
수 2명의 구성과 아시아퀴터 활용 여부가  
필수 과제다. 조상우의 거취와 별개로 남  
은 퍼즐을 맞추겠다는 구단의 계획도 드러  
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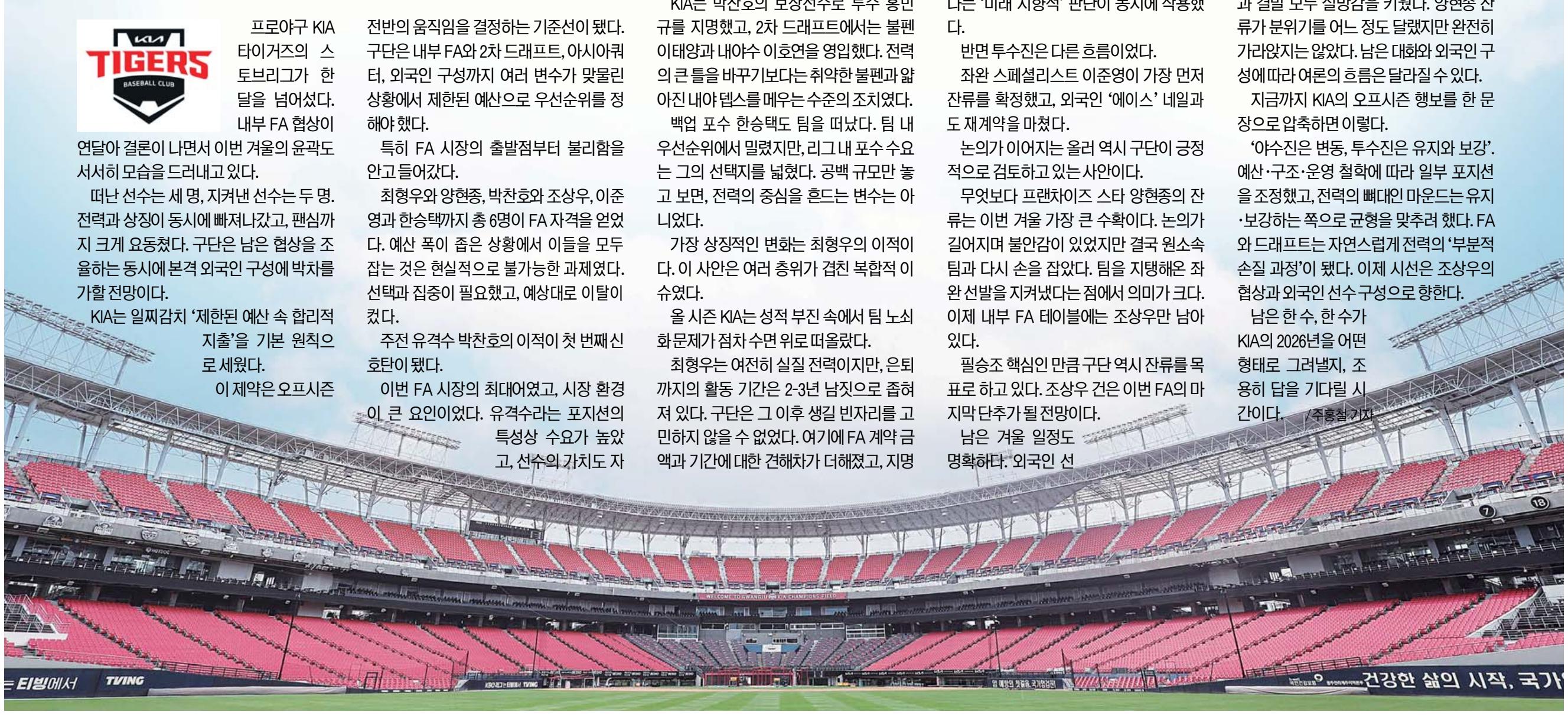
다만 팬심은 여전히 예민하다.

최형우 협상이 남긴 여운이 길었고, 과정  
과 결말 모두 실망감을 키웠다. 양현중 잔  
류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달랬지만 완전히  
기라앉지는 않았다. 남은 대회와 외국인 구  
성에 따라 여론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KIA의 오프시즌 행보를 한 문  
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야수진은 변동, 투수진은 유지와 보강'.  
예산·구조·운영 철학에 따라 일부 포지션  
을 조정했고, 전력의 빠대인 마운드는 유지  
·보강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 FA  
와 드래프트는 자연스럽게 전력의 '부분적  
손질 과정'이 됐다. 이제 시선은 조상우의  
협상과 외국인 선수 구성으로 향한다.

남은 한 수, 한 수가  
KIA의 2026년을 어떤  
형태로 그려낼지, 조  
용히 답을 기다릴 시  
간이다. /주홍길 기자



## “광주·대만 양궁 교류 물꼬…우호 증진 기대”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2일 대만체육대학 세미나실에서 실내 양궁 월드컵에 참가한 각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코칭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부회장, 대만 실내양궁 월드컵 코칭 세미나

선수·지도자·행정가로 경험과 열정 녹여낸 노하우 전달  
스토링텔링·다양한 사례 접목 실전 적용 프로그램 호평

올림픽 여자 양궁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 양궁의 선전화된 시스템, '멘토'와  
'멘토'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 양궁만의 문화,  
경기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에 힘을 쏟  
는 협회와 지도자들의 열정 등 실전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하며 광주 양  
궁과 대만 양궁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습  
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거쳐 행정가로 50여 년 양  
궁 인생을 이어 온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상  
임부회장이 지난 1~8일 대만에서 열린 World I  
ndoor Archery Championship (실내 양궁 월드  
컵) 대회에서 세 차례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대만양궁협회와 선수 시절을 함께 한 피터  
추(주빙곤) 대만체육대학 총장과의 인연으로  
대회 VIP로 초청된 박 상임부회장은 지난 2일  
대만체육대학 세미나실에서 공식 코치세미나  
강사 임명장을 수여받고 '최고의 슈팅 순간을  
완성하는 기술',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 '튜  
닝 전략', '체력·전문체력 훈련', '경기 루틴 구  
축 방법'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강의해 호평받았다.

이어 5일에는 각국 참가지도자들을 대상으  
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박 상임부회  
장은 자신의 두 가지 삶의 여성과 지도 철학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운동부 지도자  
와 교사들에게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6일에는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으로 자리 잡  
아온 역사와 지도자들의 현신, 그리고 올림픽 1  
0연패를 목표로 한 다양한 올림픽훈련 프로그  
램을 소개하며 한국 양궁의 철학과 시스템을

국제무대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세  
차례의 강연은 기존의 이론 중심이 아닌 한국  
양궁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1988 서울올림픽  
김수녕부터 2012 런던올림픽 기보배, 2020 도쿄  
올림픽 안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오예진의  
슈팅 순간 자세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  
내고 다양한 실전 사례들을 강의에 녹여내 참  
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 상임부회장은 대만 실내 월드컵대회 경기

장을 방문했을 때, 코치세미나에 참석했던 여  
러 나라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중 투자로 급성장하는 대만 양궁의 현재를  
봤다"며 "영원한 세계 1등은 없다" 이제 한국  
양궁도 AI를 접목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트레이닝 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면  
제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 주니 참 기분이 좋았  
다. 이번 대만 일정이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됐  
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광주 양궁의 우  
수성을 알리고, 대만 양궁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교류 등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전남체고에서 활과 인연을 맺으며 태  
극마크를 달았던 박 상임부회장은 지난 50년  
간의 양궁 인생을 총망라한 사전작 '흔적: 두  
가지 삶의 여성'을 발간, 후배들에게 작은 올림  
을 전했고 한국 양궁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하  
는 작은 디딤돌을 선사했다.

현재 PIS 양궁연구소를 개설해 선수, 지도  
자, 행정가로 쌓아 올 경력을 바탕으로 양궁 이  
론 정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구  
축에 열정을 쏟고 있다. /박희중 기자

##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광주시장애인체육회·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 업무협약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1일 광주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상득 광주  
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오아름 굿네이버  
스 호남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 청  
소년 대상 체육활동 및 스포츠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역 내 아동·청소년(장애인) 체육 활  
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협력 ▲위기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지원 및 물품 지  
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아동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기부채널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나  
눔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  
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내년 구례 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유관단체 준비상황 합동회의 개최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구례군 일원에  
서 열리는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  
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구례군 백두대  
간생태교육장에서 전남도, 전남도장애인체육  
회, 구례군, 각 경기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합동회의를 열고 참  
가 요강 협의, 구례군 협조 사항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경기장 실사도 진행했다. (사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구례군청 전남체전T  
F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회 일정 확정, 상  
정률 및 구호 승인 등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  
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폐회식과 성화행사  
를 총괄할 전문 대행사를 선정했으며 구례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  
개행사 연출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박희중 기자